

<2018년 9월 25일 화요일 새벽, 주 말씀>

- ◎ 한국을 중심해서 고유 명절을 쇠는 아시아권 나라들,
모두 잘 지냈어요?
어제 이곳에서 강강술래 하는 것 모두 봤지요?

20년 전부터 이야기했는데, 어제 정녕코 행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운동장을 만들어 줬으니,
운동장을 사용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됩니다.

1. 흔히 사람들이 <무엇을 원할 때>는 그리도 원하고 바라고, 그렇게도 눈물겹게 산을 넘고 바다를 건너면서 몸부림치며 행한다. 그래서 <원하던 것>을 하나님이 주시면, 막상 기뻐하며 즐거워하지 않고 영광을 돌리지도 않는다. 그런 일들이 너무 많다. <사망권 속에 있을 때>는 그렇게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바라면서 생명권에 가면 열심히 하겠다고 해 놓고, 그러다가 <생명권>에 오면 조금 열심히 하다가 그 후에 가서는 안 한다. 평균적으로 1/3 정도는 하고, 그 나머지는 안 한다.
2. 극적으로 매일 첫사랑을 하듯이 해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뺏긴다. 계속해야 된다. <이 시대>는 극적으로 매일 첫사랑을 하듯 안 하면, ‘구원자’를 뺏긴다. 그렇게도 귀하고 엄청난 역사가 진행되는 때다.
3. <신랑>을 뺏기면, ‘사랑의 근본자’를 뺏기는 것이다. <하나

님>을 뺀 것이 된다. 그러면 <사랑할 자>가 없으니 곤고하고, 어렵고, 힘들고, 눈물겨운 일이 계속 일어난다. 고로 뺀기지 말아라. 열심히,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해라.

4. 완전하라. 온전하라.

5. <사업>은 성공 못 했어도, <공부>는 성공 못 했어도, <세상의 어떤 벼슬>로는 성공 못 했어도,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고 살면서 ‘구원’은 성공해 놓고 살아야 된다. 이것 하나만큼은 꼭 하면, 현실은 고생돼도 인생길은 ‘생명길’을 가면서 영원한 성공을 하게 된다.

6. 세상에서 아무리 이것저것 다 성공했어도, 후에 가면 ‘내가 그렇게 벼슬 생활을 했었나? 영광을 누린 것이 정말인가?’ 한다.

7. 과거에 아무리 자기가 부귀영화를 누렸어도 그것이 지속되지 않으면 잊어버린다. 생각도 안 난다. <현실>에서 지속되어야 된다. <현실>에서 자기가 갖고 있어야 된다. 그래야 생각나고, ‘내가 누리며 왔구나. 내가 기쁘구나.’ 하게 된다.

8. <과거에 누렸던 것들>이 ‘현실’에서 지속되지 않으면, 기억도 안 나고 느껴지지도 않는다.

9. <구원받은 자>만 ‘과거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 기쁘게 산 것, 사랑 속에 산 것, 모든 기적과 표적의 사연들’이 기억나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보람을 느끼고 산다.

10. 결혼했어도 이혼하면, 과거에 서로 사랑하며 했던 일들을 잊어버린다. 한 번 떠나면, 기억도 안 나는 것이다. <현재>에 존재하고 있어야 하나님도 기억나고, 주도 기억나고, 과거에 해 준 것도 기억나고, 죽음 속에서 살린 것도 기억난다. <현재>에 존재함으로 승리해야 된다.
11. 지금 매일 하나님과 성령님을 사랑하고 좋아하며 살아 움직여야 지난날의 사연들이 기억난다.
12. <지난날의 사연>이 잊힌 것은 ‘현실’이 죽었기 때문이다. 현실에서 ‘죽은 생활’을 하고, ‘현실을 망각한 생활’을 하기 때문이다. 지금, 하나님이 보낸 자의 육신을 통해 말씀하신다.
13. 평생 동안 하나님이 “이래라. 저래라.” 하시는 말씀을 똑똑히 듣는 자들은 별로 없다. 그러나 <주>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말씀을 똑똑히, 완벽하게, 확실하게 들을 수 있다. 고로 <주>가 있어야 된다. 없으면, ‘하나님이 있나? 없나?’ 하고, 신앙생활을 해도 막연하게 한다. 또 성령의 은혜를 받으면 그때는 확실하다고 하나, 성령의 불이 식으면 그때는 또 자기 생각으로 왔다 갔다 한다. 뜨거운 물이 식으니, 찬물과 똑같다. 고로 <성령의 은혜>를 받았으면, 매일 행해야 된다. 힘들고 고생돼도 매일 행해야만 ‘산 자의 삶’을 살게 된다. 안 하면, 어떤 자라도 ‘죽은 자’가 된다.
14. 사람이 숨을 쉬다가 숨을 멈추면, 못 견디고 2~3분이면 ‘죽는

세계’로 넘어간다. 이와 같이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다가 안 믿고, 말씀도 안 듣고, 행하지 않으면 바로 죽어 버린다. 고로 생활 속에서 힘들어도 날마다 호흡하듯이 ‘생명길’을 계속 가야 된다.

15. 매일 새벽에도, 평소 삶 가운데도 <주>를 찾고, 대화하고, 이야기해야 된다. 직접 <주의 육신>을 만나기 힘들니, ‘영’으로, ‘혼’으로 자꾸 대화해야 된다.

16. <혼>은 동시에 ‘만 명’과도 이야기하고, 대답도 다 한다. <육신>이 혼에게 ‘1분의 시간’을 주면, 10분, 100분, 1000분까지 이야기를 해 준다. <영의 세계>는 ‘확대한 시간’이기에 그러하다.

17. 하나님께도 ‘1분의 시간’을 드리면, 1000분씩 이야기해 주신다. 그런데 시간을 안 주면, 못 하신다.

18. <영>으로 하라는 것은, ‘육’으로 만나서는 그만큼 시간이 없기 때문이다. 지금은 섭리사에 세계적으로 엄청난 인원이 있기 때문에 다 만날 수가 없다. 옛날 삼선교에 있었을 때는 전체를 모아 놓고 밥을 먹어도 방에 자리가 남았다. 그때 모인 자들에게 말하기를, “지금이나 이렇게 같이 밥을 먹지, 앞으로는 앉아서 같이 밥을 못 먹는다. 지금은 <가정적인 단계>다. 앞으로는 <민족적인 단계>로 올라가는데, 그 단계로 가면 따르는 자들이 많아져서 섭리사 모든 사람들을 한자리에 모을 수가 없다. 어떤 집회라도, 행사 때라도 한자리에 모을 수가 없다. 지금 너

희들이 행복하다.” 했다. 이렇게 말하면, 제자들이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올 수 있나요?” 했다. 고로 그들에게 말하기를, “앞으로는 <교회 하나>가 ‘사람 하나’ 격이 될 것이다. 그러면, 교회도 다 가 보기 힘들다. 그런 때가 ‘당세’에 오리라. 너희가 보고, 증거도 해라.” 했다. 그때 있던 자들이 지금도 몇 명 남아 있다. 그들이 봤으니, 이야기할 것이다.

19. 앞으로는 <한 나라>가 ‘한 개인’ 격이 될 것이다. <한 나라>를 ‘한 명’으로 생각해도 한 나라를 다 만나기가 힘들다. 고로 <영>으로 만나고, <혼>으로 만나서 대화하라는 것이다. 그러니 ‘왜 옛날처럼 안 해 주시지?’ 하지 말아라. 옛날 식으로는 숫자가 많아서 못 하고, 시대가 바뀌어서 못 하고, 하나님께서 차원을 높이셔서 안 된다. <영적 차원으로 갈 때>는 ‘영적 차원’으로 해야 해결된다.

20. <부활기>는 ‘영적 역사의 시대’다. <영으로 활동하는 때>다. 육신이 쓰여질 때 ‘영’ 같이 쓰여진다. 그래서 선생이 하는 것을 보면, 선생은 ‘영적 차원의 주관’을 받고 ‘영’을 중심해서 한다. 그러니 사람들이 봐도 예사로 안 보이고 다르게 보인다. 선생은 늘 하나님께서 행하시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해 놓는다. <육>으로 다뤄서 안 될 때는 ‘영’으로 해 달라고 간구한다. 하나님은 ‘원리 원칙의 하나님’이시니, 기도해 놓으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감행하신다.

21. 완전하게 하려면, 항상 ‘영적’으로 해야 된다. 그래야 더욱 완전하게 할 수 있다. <육적인 것>은 100% 해 났어도 완전하

다고 할 수 없다. <영적>으로 해야 100% 완전해진다.고로 <육적 세계>와 <영적 세계> 두 가지를 보고 계속해 나가야 된다.

22. <육신 세계>도 더 잘사는 것, 더 좋은 집을 짓고 사는 것, 더 좋은 정원 속에 사는 것에는 끝이 없다. <영의 세계>도 더 잘 되고, 더 잘사는 데에는 끝이 없다. 고로 계속해야 된다. 매일, 죽기 전까지 부지런히 행해야 된다.

23. <하나님의 정원>은 다 만들어 놓았으니, 이만하면 됐다. 하나님도 “만족하다.” 하신다. 만들었으니, 이제 <하나님의 전>을 자신의 정원으로 삼고 같이 쓰면 된다. 하나님께서 신부들에게 같이 쓰자고 주셨기 때문이다. 고로 <하나님의 정원>을 가지고도 전도하면 된다. 앞으로 구름 떼같이 온다. 너무 많이 와서 감당을 못 할 정도다. 하나님이 행하시고, 주가 매일 “하나님, 지구 세상 75억 명을 위해 기도합니다. 마음이 감동돼서 계속 교회로 오게 해 주세요.” 하고 기도하는데, 오지 않고 배기겠느냐. 하나님께서 구원자의 기도를 듣고 즉시 행하신다. 하나님도 그것을 원하시기 때문이다. <구원자의 기도 조건>으로 합당한 자들이 섭리사에 오게 하고, 못 오는 자들은 개신 기독교로, 천주교로 가게 하고, 그리고 인도자가 없으면 자기 스스로 하나님을 섬기게 해 달라고 기도한다. 그렇게 해서 매일 전도되는 사람이 섭리사 인원보다 훨씬 많다. <주>는 지구촌에 있는 생명들을 책임지며 매일 이 같은 기도를 한다.

24. 하나님께서 감동시키시고, 성령님께서 감동시키시면, 안 돌아올

수가 없다.

25. <돌아왔다가 빠져나가는 사람들>은 참 불행한 사람들이다. <사망>으로 가기 때문이다.
26. <사망의 세계>, <죽음의 세계>는 정말 가지 말아야 된다. <자기 영>이 없어지지 않고 영원히 그곳에서 지옥 고통을 받으며 고생한다. <영>은 ‘자기 혼과 마음, 육신의 행위’를 합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육신’이 없어도 육신이 세상에서 하나님께 못한 것, 시대를 제대로 살지 못한 것을 기억하면서 그대로 고통을 받는다. 어떤 사랑의 세계도, 어떤 물질의 세계도 사망권으로 가는 것은 못 막는다. 돈으로도 못 막고, 명예로도 못 막고, 권세로도 못 막는다. 다른 사고를 갖다 대도 안 된다.
27. 선생은 <시대 십자가>를 질 때, 그곳에서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를 사랑하고 섬기고 즐거워하며 살았기에 그 고통을 견뎠다. <영의 주인, 지구상의 정신적인 지도자>이기에 ‘자기 정신’을 마음대로 다스릴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성령님께 조금 더 있다 나가면 안 되겠냐고 하는 정도까지 만들었다. 그랬기에 견디고 나온 것이다.
28. <주>는 지옥 같은 곳도 ‘천국’으로 만들어 버린다. 하나님과 성령님과 같이 만들기 때문이다. 그래서 <월명동 지옥 같은 골짜기, 저주의 골짜기, 천하의 쓸모없는 골짜기, 앞산과 뒷산이 닿는 좁은 골짜기>도 아예 ‘천국’으로 만들어 버렸다.

29. 선생도 처음에는 생각하기를, ‘왜 많은 골짜기 중에서 이 골짜기에 자리를 잡았을까? 석막리만 돼도 덜한데... 중말거리만 돼도 덜한데... 공주 계룡산 밑이나, 대둔산 밑에 자리를 잡았으면 참 좋았을 텐데...’ 했다. 결국 개발하고 만들고 나서 보니, <하나님의 뜻>이 있었기에 하나님은 선생의 할아버지가 이곳 월명동에 자리를 잡게 하신 것이었다. 할아버지가 하나님을 안 믿었어도, 하나님은 ‘뜻’이 있으니 마음대로 쓰셨다. 그러면, 하나님이 필요할 때마다 사람을 쓰셨는데, 그들의 영은 또 어떻게 됐을까? 기도하고 간구하고서 그 영을 보니, 완전히 지옥에는 가지 않았지만 행실을 못 해서 흑암 속에 있었다. 고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그들을 구원해 달라고 했다.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은 자들 중에서 <아주 악한 영, 쪽정이만 있는 영>은 아예 ‘사망권’으로 가고, 그래도 다시 기르면 곡식이 나올 만한 자들은 영계에서 복음을 듣고 다시 소생하는 기간이 주어진다. - 이 기간에 속한 영들은 그 후손들이 기억하여 ‘구원시키는 영들’을 보내서 구원을 시킨다. 그러니 자기가 잘하면, 부모가 교회를 안 다녀도 자식을 통해서 구원이 되기도 한다. 고로 자꾸 불쌍히 여겨 달라고, 부모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된다. <독수리>가 손을 대면 되니, 걱정하지 말아라. <육계>에서 놓쳤으면, 영계에 쫓아가서 바로 데리고 온다. 하나님께 기도해서 보내 달라고 하면, 바로 온다. 그것도 못 하면 구원자가 아니다. <구원자>는 무조건 ‘우선권’이다.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우선권이 있다. 그러나 <구원자>가 해 줘도 ‘구원받을 자’가 너무 안 하면, 하나님도 “할 수 없다. 순간의 찬스(chance)다.” 하신다.

30. 지금은 ‘영의 세계 시대’ 다.

31. <월명동 골짜기>를 개발하지 않았을 때는 ‘저주의 골짜기’로 봤지만, 만들어 놓으니 ‘이상세계’가 됐다.

32. <따르는 자들>도 그러하다. <주>가 ‘시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하나님>도, <성령님>도, <성자>도 계속 시간을 내서 하나하나 교육하며 만들었기에 지금같이 된 것이다. <만든 사람>도 계속 안 쓰여지면 ‘안 쓰여지는 단계’에 그대로 있고, 계속 쓰면 더 귀하게 된다.

33. <월명동 작품들>도 그냥 놔두면 귀하게 안 보나, <주>가 소개하면 ‘하늘로 치솟는 귀한 작품’으로 인식한다. <주>가 하기에 달렸다.

34. 선생이 한 교회 교역자에게 말해 주기를, “백성의 소리를 들어 보아라. 네가 보는 것과 다르다. 자기 주관대로 하는지 살피고, 깨닫게 해 주고, 늘 만들어 줘야 된다. 그냥 보면 똑같은 사람으로 보편적으로 보이나, 하나하나 만들어 보고 사연도 들어 보면 다르다.” 했다.그 후 교역자가 사람들을 만나 보더니, 자기 교회에 인물들이 많다고 했다. 그리고 만들 사람도 많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고 했다. <주님의흰돌교회>도 지도자가 자꾸 <주님의 관>을 심어 주고, 주를 증거해서 깨닫게 해 주고 만들어서 그같이 된 것이다. 그리고 또 말해 주기를, “그냥 보면 다 똑같다. 그러나 사연도 다르고, 그 사연에 따라 해 줄 말씀도 다르다. 보편적으로 보면 안 된다. 산 위에서 산을 쳐다보면 그

산이 그 산 같고, 뿔뿔뿔 그냥 생겼어도, 하나씩 올라가 보면 전부 다 개성도 다르고, 골짜기도 다르고, 물 흐름도 다르고, 물맛도 다르다. 어떤 산에는 웅달샘도 있고, 어떤 산에는 기가 막힌 나무들도 있고, 어떤 산에는 나물도, 버섯도 나고, 또 어떤 산은 기암절벽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작은 산>은 작은 산 나름대로 폭포수가 흐르고 있다. 이와 같이 멀리서만 보지 말고, 들어가서 하나씩 깊이 봐라. 그러면 ‘지도자’가 되어 간다.” 했다.

35. 사람들이 ‘자기 간판’을 안 달면, 월명동에 와서 돌아다녀도 누군지 아무도 모른다. 사연을 내놓으면, 저마다 기구절창(崎嶇切愴)하다. 자기만 <주>를 가까이하고 좋아하며 사는 것 같아도 다른 사람들도 많다. 늦게 왔어도 더 무섭게, 물불 가리지 않고 행하는 사람들도 있다. 고로 <섭리사 사람들> 하나하나 모두 귀하게 보고, 또 귀하게 보고, 또 귀하게 봐야 된다.

36. 서운하게 생각하면 안 된다. 서운하게, 섭섭하게 생각하면 결국은 죽는다. <하나님>도, <주>도 그렇게 많이 해 주시고, 또 ‘구원’ 시켜서 지옥 갈 사람들이 지옥에 안 가게 해 줬으면 다한 것이다. 나머지는 본인들이 해야 된다.

37. <서운하게 생각한 사람>치고 안 죽은 사람이 없다. 다 죽어서 나갔다.

38. 선생이 ‘시대 선고’를 받았을 때, “주님, 나 사랑해요?” - 이 말을 했다가 성자께서 무슨 그런 말을 하냐고 하며 그의 심

정이 전해져 숨이 안 쉬어져서 죽을 뻔했다. 성자는 말씀하시기를, “사랑해서 지금까지 이같이 만들어 놓은 것이다. <사랑>과 <시대 선고>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하셨다. <고난 받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따로이다. 그 고난은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온 인류를 위한 것’ 이었다. 그래서 <영광의 십자가>가 된 것이다. <악인들>로 인해서 받은 고통이 아니라, ‘온 인류를 사랑하기 위해서 받은 고통’ 이었다. 이것을 깨달았을 때, 마음을 풀고 그 기간을 ‘10년 동안 쉬는 기간, 노는 기간’ 이요, 또 ‘하나님과 연애하는 기간’ 이요, ‘성령과 같이 사는 기간, 동행하는 기간’ 으로 돌려 버렸다. 그리고 ‘이때 시대 십자가를 안 지면, 나가서는 이같이 둘이서 일대일로 못 지낸다.’ 할 정도까지 마음먹고 했다. 10년 동안 뇌, 몸, 무릎 등을 쉬면서 완전히 만들어서 앞으로 10년은 창창할 것이다. 만들어야 또 써먹으니, ‘준비하는 기간’ 으로 사용한 것이다.

◎ 이제 오늘 말씀을 들었으니, 낙심치 말고 열심히 하기 바랍니다.

많은 일을 하다 보면, 나중에는 피곤하고, 쓰러지기도 하고,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런 것을 이겨 나가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세계>로 치고 나가야 이깁니다.

“내가 너희의 머리를 굳게 해 주리라. 강철같이 해 주리라.”
한 말씀대로 에스겔같이 ‘강철 같은 마음’ 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머리〉가 강해야 됩니다. 〈생각〉이 강해야 됩니다.

◎ 말씀 마치고 기도하겠습니다.